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5.09.17.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집행위, 유럽 연구·기술 인프라 전략 발표(9.15)

-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과학 및 기술 혁신 리더십 강화를 위해 ‘[유럽 연구 및 기술 인프라 전략](#)’을 발표. 전략은 유럽 내 과학자, 연구자, 혁신가, 산업계가 최첨단 연구 시설, 고품질 데이터, 맞춤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, 세계적 인재들이 유럽을 선택하도록 유도
- 전략은 ▲연구·기술 인프라 생태계 강화, ▲인프라 접근성 향상, 인재 유치·육성, ▲거버넌스 개선, ▲국제 협력 및 회복력 강화를 주요 5대 실행 영역으로 설정

○ 집행위, 유럽 자동차 리더십 강화 위한 신규 계획 발표(9.12)

- 지난 9월 12일 브뤼셀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3차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관한 전략 대화에서 자동차 행동 계획 (Automotive Action Plan)의 신속한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
- 자동차 산업 관계자 및 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유럽의 전기차 리더십 확보,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 혁신 가속화, 유럽 배터리 제조 산업 강화를 논의
- 자하리에바 및 치치코스타스 집행위원은 2Zero 파트너십(무배출 차량), CCAM 파트너십(커넥티드·협동·자율주행 모빌리티), BATT4EU 파트너십(배터리 가치사슬 혁신)과 함께 자동차 연구혁신 가속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

○ 독일 Sprind 혁신기관의 급진적 신기술 발굴 위한 자금 지원 방식(9.16)

- 독일의 혁신기관 Sprind는 ‘Challenge’ 방식을 통해 다수의 팀에 빠르게 자금을 지원하고, 급진적 기술 개발을 유도. Sprind의 방식은 신속성, 자율성과 혁신성, 시장 지향성, 간소화된 절차, 국제 개방성 등이 특징
- 선정된 팀은 최대 3년간 3단계에 걸쳐 총 600만 유로까지 지원받고. 최종적으로 TRL 6~7 수준의 시장 진출 가능한 데모 제품을 제시해야 함
-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경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유럽 혁신위원회(EIC)가 Sprind Challenge를 본받을 것을 권고, 이에 따라 EIC는 2026년부터 Sprind식 ‘첨단 혁신 챌린지’를 시범 도입 예정

○ (기타) ▲EU-호주,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탐색적 논의 개시(9.10) ▲EU 데이터법 발효, 연결 기기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권한 강화(9.12) ▲오픈 사이언스 확산, 하지만 효과는 아직 미지수(9.16) ▲ERC 과학위원회, ERC 평가 절차 변경사항을 담은 문서 발표(9.15)